



# 초 대 합 니 다

보내는 기쁨: 12기 광주전남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받는 즐거움: 군산미군기지 우리평찾기 시민모임

오월입니다.

80년 오월, 후방에서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나르는 아주머니의 모습, 한방울도 흘리지 않게 물을 떠다 주는 누이의 모습, 쫓기는 시민군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 모습, 아들에게 총을 들려보내고 자신의 피를 후회없이 뽑아 주었던 5월 여성들.

19년이 지난 지금, 총부리를 들이대는 계엄군은 없지만 미국에 의한 한반도의 전쟁 책동은 가시화되어 나타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시대 이후 어려워진 경제현실속에 정리하고 1순위와 온갖 성폭력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생계를 연명해가야 하는 여성들의 현실속에서 80년 그때처럼 당당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투쟁하여야 할 때입니다.

99년 남여대협은 역사적인 5월 새로운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남여대협 출범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자리이기 보다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는 출범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여성민중의 뜨거운 연대와 투쟁의 장으로 한판 어우러져 봅시다.

남여대협 출범식에 5만 남여대협 여학우와 130만 광주시민을 초대합니다.

일 때: 반미자주주의 해 5월 15일 늦은 7시 이후  
어디서: 만주-조선대학교 18극장  
내 용: 남여대협 축하 비디오 공연  
각 대학별 축하공연  
여성단체 공연  
각 대학 총여학생회장 결의발언  
남여대협 의장 응림

오월의 딸 자주의 새바람

## 12기 광주전남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 겨레지기 활동

겨레지기는 공정한 IMF재협상과 차별정리해고 반대, 주한미군 철수, 온겨레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1기 남녀대협 출범식 앞선단입니다. 겨레지기는 남녀대협 출범식과 전여대협 총회를 겨레지기의 활동으로 치러내고 먼중들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있는 미국의 본질을 알려내면서 투쟁을 해나감으로써 우리의 겨레를 지켜내자는 뜻입니다.

겨레지기는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활동합니다.

## 겨레지기 규율

1. 시간은 칼같이 지킨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시간은 지켜요.
2. 자료를 받으면 꼭 공부해온다. ♥자료는 폐지가 아니에요.
3. 개별활동은 하지 않도록 한다. ♥옆에 함께 활동하는 친구를 생각해야죠.
4. 총화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 ♥하루총화는 생명.
5. 서로 챙겨준다. ♥사랑의 음성을.....

## 겨레지기 일과표

### #.11일부터 15일까지

7시50분	조회, 아침선전
12시~1시	1생,2생 점심선전
5시	총여로 모임
5시30분~6시10분	백도 앞 선전
6시10분~7시	저녁해결
7시~8시30분	교양
8시30분~10시	선전물 작성 및 문예물 준비
10시~10시30분	하루총화

### #.16일

9시~10시	1주일총화
10시~2시	나주동신대 선전
2시~4시	518장 선전물 작성
4시~9시	출범식 준비

### #.17일

남여대협 출범식

### #.18일

남여대협 출범식총화, 전국연합 국민대회 참여.

♠.13일	타대익선전	11시~2시	오남대
15일	타대익선전	12시~2시30분	서강전문대
16일	타대익선전	10시~2시	니포동신대

♠저녁식사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봅시다.

14대 자주적 중여학생회 남녀대협출범식 겨레지기